

安 基 和 先生님

1941年 京城齒專을 卒業하신 安基和博士는 在學中 學
 級長을 했다. 鄉里인 黃海道 白川에서 金融組合書記
 로 있다가 뜻한바 있어 京城齒專에 入學했다. 그러니까
 海州高等普通學校를 나온지 3年後의 일이다.

齒專在學中에는 成績이 뛰어났음은 勿論 音樂(특히 管
 絃樂)에 趣味가 있어 音樂會도 가끔 열었는데 여기에는
 當時 牧山교수가 指揮했다. 隨時演奏會를 갖은 同會는
 지금 서울大齒大崔翔默教授가 이끄는 Dental Orchestra
 의 前身이라고 할까. 平素 誠實하고 忍耐力이 強하고 剛
 直한 性格의 所有者인 安基和博士는 一時 白川溫泉에서
 齒科醫院을 開業하다가 8.15解放을 맞았으며 白川藝術
 同好會가 組織되어 會長으로 推戴되고 50餘名의 會員을
 거느리고 農村啓蒙運動을 展開하기도 했다.

그러나 1949年 學究에 熱望을 품은 安博士는 서울大
 醫大에 入學 1956年 서울大醫大을 卒業했다. 齒大와 醫
 大를 卒業한 그는 서울大附屬病院, 赤十字病院, 서울東
 部病院을 거쳐 지금은 서울 中區 新堂洞 一隅에서 漢城
 醫院을 開設, 現在에 이르고 있다.

耳鼻咽喉科 專問醫이기도 한 安博士는 1967年「韓國
 人 胎兒外耳道鼓膜 및 耳小骨의 發育에 關한 研究」라는
 論文을 提出하여 서울大學校에서 醫學博士學位를 取得
 하여 그의 學究에 對한 執念은 周圍의 놀라움을 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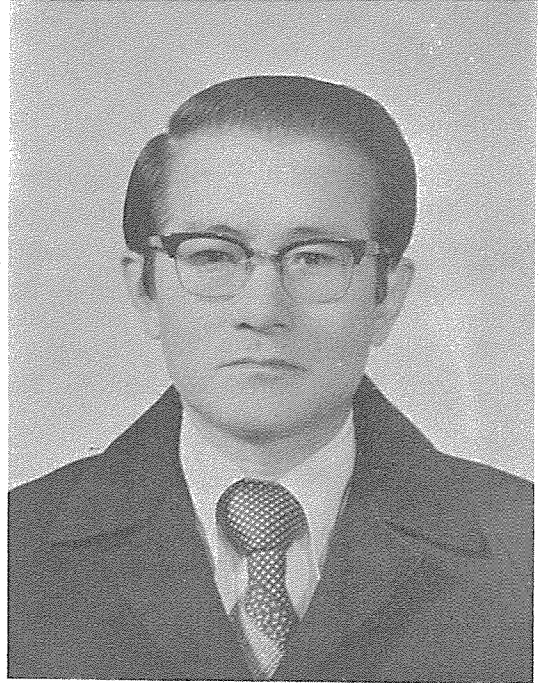
管絃樂中에서도 “트롬펫”은 거의 프로級이어서 지금
 도 音樂을 좋아하는 親舊 몇이 뭉이면 即興演奏會를 갖
 기도 하는 安博士는 지금 海州市民會副會長직을 맡고 있
 으면서 望鄉에 서름에 쌓인 鄉里 여러분을 위한 慰安잔
 치를 열어주는 것이 즐거움中에 그 으뜸이라고.

每週 土曜日 열리는 서울大醫大 耳鼻咽喉科抄讀會를
 20餘年間 빠짐없이 參席하고 계시다는 安博士는 今年으
 로 滿 65歲가 된다. 65回 生辰을 맞아 萬壽無疆을 빈다.

安基和(1913年 9. 12日生)

서울 中區 新堂 1洞 272-72 (전화 254-0860)

漢城醫院·安齒科醫院 院長



KUM KANG
 Dental Lab

261-0673



금강치과기공소

대표 조동환

서울·종로구종로5가 231-9

대원빌딩 302호

이규명 치과의원 옆